절망 속 성찰로 나아갈 길 찾다



이안의 Media In Buddha

㉜ 불교적 세계관으로 보는 SF



영화 〈인터스텔라〉 한 장면.

"수행으로 깨닫고 부처 이르라"
종말 아닌 희망 강조하는 불교
SF 주인공, 고난 극복 수행자
역경 속 자신 마주하며 성장

많은 종교들은 종말을 이야기한다. 인간을 비롯한 세상 만물이 미래에는 모두 멸망하게 된다면서 그때 자기 종교만이 구원을 약속하리라는 종말론은 대중의 믿음을 이끌어내는데 아주 유효하다. 그런데 불교는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신 현세를 극복할 희망을 이야기한다.

현상계는 생성과 지속, 소멸의 과정을 되풀이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윤회를 거듭하는데, 언제부터 윤회해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행을 완수해 모든 번뇌를 끊고 다시 생사의 세계에 윤회하지 않는 아라한이 되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과거불이 있었든 미래불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끝이 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미래가 오게 되더라도 그 미래에도 중생을 제도하려는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 것이라고 든든하게 믿음을 준다.

많은 SF영화들은 이런 불교적 세계관에서 볼 때, 아무리 현재가 절망스럽고 미래가 불안하더라도 그 미래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인류차원의 수행을 밀어붙이는 장르라고도 할 수 있다.

가령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종말을 이야기하던 1999년 이전에 21세기는 세상의 종말로 예언되던 시기이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묵시록적 재앙을 겪어낸 후에 새로운 천년 왕국이 도래하리라던 시기이기도 하고, 과학 기술의 무한한 진보로 인류가 우주 식민의 시대를 열게 되리라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컴퓨터로 원고를 쓰는 것이 일반화된 세상에서 밀레니엄 버그가 몰고 올 문명의 혼란에 대해 전 지구적으로 우왕좌왕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1968년에 제작된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경험 불가능한 미래를 상징하는 시간대에 대한 상상이라고 여겨졌다.

그런데 21세기가 됐고, 밀레니엄 버그는 수정 가능한 프로그램 상의 코드 문제였고, 우주 식민에 대한 탐사는 계속되지만 아직 인류가 살만한 별은 찾지 못했고, 지구 곳곳을 온통 천재지변으로 몰아가고 있는 인간 과학 문명의 식민지는 아직 지구별 하나뿐이다.

영화는 진작부터 SF라는 장르 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그려왔다. 그 한 갈래는 외계와의 조우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한 갈래는 문명이라는 편도 열차에 올라탄 인류의 미래가 어떠한 모습일 것인가에 대한 상상의 현실화였다. 이들 두 갈래는 때로는 각각 한 가닥의 이야기를 펼쳐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갈래가 하나로 꼬이기도 하면서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 희망 또는 불안의 징후들을 미래의 모습을 빌려 투영해왔다.

그 양상이 어떤 것이든 간에 영화가 그려내는 미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미셸 푸코(M. Foucut)의 표현을 빌리자면 '동일자'의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동일자'의 미래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영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식을 특정한 형태로 질서 잡고 당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동일한 형태'의 방향성을 부여하는 보편적인 표상체계로서의 '에피스테메'가 미래에 대한 영화에도 고스란히 스며들어 작용하는 것이다.

과학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날로 촘촘히 짜여가는 정보화의 그물로부터 미래에 대한 전망도 자유롭지 않다. 이런 시대의 징후는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 이래 유토피아로서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로서의 미래로 그려지곤 했으며 영화 또한 암울한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인색하지 않다.

미래 사회에 대한 대개의 영화는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껏 우리가 무수히 접해 온 신화나 설화의 서사구조 속에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은 테크놀로지의 세계를 놀라운 특수효과를 빌어 변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로드 워리어〉에서 보여주는 미래는 좀 다르다. 영화 속의 미래는 오로지 특수 효과로만 존재할 뿐 아직까지는 실현 불가능한 테크놀로지의 세계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지난 문명 속에서 만들어졌으며 이제 어느 정도 낡은 것이 되어버린 조야한 고철덩어리의 세계이다. 휴머니티에 대한 회의, 파시즘화 되어가는 대중문화, '속도'의 이름으로 소비되는 현재의 문명을 황량한 원시적 풍경 속에 옮겨놓음으로써 정신이 상실된 현재를 가장 물질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의 난무를 통해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

〈블레이드 러너〉 또한 아주 낯익은 대도시 뒷골목의 풍경 속에 기존의 서사물들에서 무수히 되풀이되던 인조인간 이야기를 끌어들여 기억을 지배하는 권력에 의해 자기정체성을 확신할 수 없는 미래사회를 만들어냄으로써 실존적 회의의 문제를 제기한다. 자본의 지배 속에서 날로 물신화되고 관료화되어 가는 세계,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정보화의 그물 속에 소멸되어 가는 개인의 정체성 등 우리 시대가 품고 있는 위기의 징후들을 고발하기 위해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아주 익숙한 SF의 장치들을 빌어 가상현실로서의 미래를 만들어낸 것이다.

〈인터스텔라〉 또한 다르지 않다. 과학 문명의 발달은 이제 아버지가 딸을 위해 옥수수를 거두어 먹이는 것조차 불가능해진 지구에서 근대 이후 지배 가능하다고 믿어 온 담론들에 대한 의심을 이야기한다. 근대 이후, 인간은 과학의 힘으로 시간과 공간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가령, 서울에서 더 가까운 곳은 한반도 정중앙에 있는 양구가 아니라 제주도다. 기차도 없는 양구는 차를 타고 적어도 서너 시간 이상을 가야 닿지만, 제주는 비행기를 타면 50분이면 도착한다.

〈인터스텔라〉는 인간의 문명을 가능하게 했던 농경이 불가능해진 지구에서 다시 농경을 통해 생존이라도 지속하려는 안간힘을 가장 근대적인 방식인 시공간의 압축을 통해 이루고자 한다. 지금보다 더 새롭고 더 근사한 무언가에 대한 꿈 때문이 아니라 예전처럼만 살 수 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싣고서 그냥은 넘을 수 없는 물리적 시공간의 한계를 테크놀로지의 힘을 빌려 돌파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렇게 넘어가서 도달하는 곳은 〈혹성탈출〉이 그랬듯이 돌고 돌아 지구, 〈콘택트〉가 그랬듯이 지구에 나고 죽었던 수많은 인류 가운데서도 자신의 가족으로 되돌아온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공간을 넘어선 어드벤처를 통해 〈그래비티〉가 그랬듯이 자기 자신과 마주 선다.

〈인터스텔라〉 또한 오랜 SF의 계보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우주여행이 결국 인간의 자아 성찰을 위한 도전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모험이었듯이. 그 모험에서 깨닫는 것은 식민 가능한 또 다른 행성이 아니라 이토록 황폐해진 지구에 대한 책임이다. 〈인터스텔라〉는 이 거대한 우주의 별과 별 사이에서 가장 먼 곳이 바로 지구이고, 가장 위험한 생명체가 인류이며, 가장 안타까운 관계가 가족이고, 가장 모르겠는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는 영상 에세이다.

다시 푸코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기존의 담론을 전복하고 그것에 의해 은폐되고 억압된 것을 드러내면서 그것이 강제하는 실천을 넘어서려는 비판적 문제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들은 그 결말이 확실할 수 없는 열린 구조로 끝날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주인공은 화두를 놓지 않고 윤회를 거듭하며 과거에서 미래까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수행의 길을 계속하는 것이다.

〈영화평론가〉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⑤

1. [보기] 중 불교의 인간관끼리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수기(修己)와 수양(修養)을 강조하며, 고도의 수양을 쌓은 사람을 군자(君子), 또는 성인(聖人)이라 부른다.
ㄴ. '인간이 현실적 고뇌를 어떻게 극복하느냐'하는 인생론적 입장에서 인간을 조명하고 있다.
ㄷ.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고 있으며, 규범적 측면에서 인간다움을 찾으려 하고 있다.
ㄹ.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늘의 기품과 땅의 형상을 가장 완벽하게 부여받은 중간적 존재자로 본다.
ㅁ. 인간의 심성은 본래 맑고 깨끗한 것으로 보았지만, 무지와 탐욕에 의해서 '고통[苦]'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① ㄱ - ㄷ ② ㄱ - ㅁ ③ ㄴ - ㄹ ④ ㄴ - ㅁ ⑤ ㄷ - ㄹ

해설 : 12번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ㄴ.'은 인본주의적 종교로서 불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거나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한다'는 불교의 기본 교리가 내포하고 있는 사상적 특성으로 틀린 것은?

① 부처님의 가르침은 합리적이다.
② 부처님의 가르침은 객관성을 갖추고 있다.
③ 부처님의 가르침은 보편적 사실에 입각하고 있다.
④ 부처님의 가르침은 존재의 절대성을 주장하고 있다.
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증적·과학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해설 :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은 삼법인 중 제행무상과 관련된 가르침이며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사상은 연기법을 가리킨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며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관찰된다. 그럼으로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사실과 관찰의 내용이기에 제행무상과 연기법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현실에서 실증된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도 독자적인 것도 없기에 모든 존재와 단절된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3. 불교 경전에도 신이나 하늘나라에 대한 서술이 많다. 불교에서 말하는 신의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불교의 경전에 다양한 신들이 등장하지만 숭배나 신앙의 대상은 아니다.
② 불교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다른 존재나 힘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불교는 인간만을 고귀한 존재로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존재는 무시해도 된다.
④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을 도와주거나 수행의 단계를 상징하는 존재이다.
⑤ 외부에 존재하는 신은 인간의 어리석은 상상일 뿐, 인생의 지배자나 창조주는 아니다.

해설 : 불교에는 신을 포함한 다양한 신비적 존재(예시 : 용, 아수라 등)를 말하나 이는 비유적인 표현이거나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는 없다. 불교에서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인간만이 고귀해서가 아니라 인간세상이 고통과 즐거움이 적절한 상태이기에 부처님의 진리를 배워 깨닫기에 다른 세상의 존재들보다 나은 환경에 있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2번 문제 참조.

4.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 깨달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출가수행자가 아니라 재가 불자들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②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깨달음에 이르도록 이끌어간다.
③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어른과 아이, 지식의 수준, 재산소유의 정도는 상관이 없다.
④ 모든 사람은 깨달음의 성품을 본래부터 갖추고 있으며 군장병 불자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⑤ 깨달은 분은 오로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며, 앞으로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을 사람은 있을 수 없다.

해설 : 불교는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고 믿기에 재가 불자 및 어른과 아이, 지식의 수준, 재산소유, 군장병이라는 것이 깨달음을 얻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깨달음에 이르도록 이끌어간다.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깨달으신 분(과거불)이 있으며 앞으로도 깨달을 존재(미래불)이 있다.

정답 : 1.④ 2.④ 3.③ 4.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